

# 천년(千年)을 사는 비법(秘法)

박정만 / 은누리 한의원 원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은 사람들의 큰 바람이다. 격언(格言)에도 '재물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건강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生老病死)은 피할 수 없는 숙명(宿命)과도 같은 것인데, 병 없이 오래 살려고 하는 노력은 부질없는 짓인지도 모른다. 진시황도 어린 나이에 죽었고, 김일성도 결국 병으로 죽었고, 돈 많던 이병철 씨도 병으로 죽었다. 게다가 세상에는 병원도 많아지고 의사도 늘어났는데 아픈 사람은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고, 이상한 병도 많이 생기고, 십수년씩 병원에 의존하여 밥 먹듯이 약을 먹는 사람을 주위에서 심심찮게 보는 것은 무슨 일인가? 천수(天壽)를 다하지 못하고, 병으로 고통받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또한 더 많아진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모순(矛盾)이 아닐까?

건강은 돈이나 권력으로 얻을 수 없고, 더욱이 병원이나 의사가 나의 몸에 대해 해줄 수 있는 역할에도 한계가 있음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병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원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 매일 인삼 녹용 달여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 한번쯤 반문해 보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학적 치료의 대상인 질병(疾病)이란 것도 과연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서양의 학에서는 악마와 천사, 선과 악의 대립처럼 건강과 질병을 이원적으로 보고 있으며, 병을 하나의 뚜렷한 존

체로 인식하며, 특정 병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진단행위이고, 병에 이름을 붙여야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다. 질병은 악마와 같은 것이어서 박멸(撲滅)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병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먼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질병이란 것은 사람의 몸이 변화해 가는 여러 상태들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병이란 것을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분리해 낼 수 있는 것인가? 외과적인 손상이나 전염병의 일부는 환부를 도려내거나 병원균을 제거함으로써 병을 치료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의 경우에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적용하기 곤란해진다. 심지어 감기와 같은 급성질환의 경우에도 이러한 질병의 원인을 도려내야 한다는 방법은 좋은 치료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환원주의적이며 기계론적인 접근으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기존 서양의학은 여러 방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이나 질병 치료에 있어서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고, 전인적(全人的)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대안은 없는 것일까?

전통의학, 즉 한의학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한의학은 먼저 인간의 몸이 건강하려면 자기를 둘러싼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고 한다. '인신(人身)은 소천지(小天地)' 라고 하여 사람의 몸을 이루는 원리는 우주(宇宙)를 이루는 원리와 동일하며 사람의 몸은 대천지(大天地)의 유기적(有機的)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되

며, 못 생명을 지닌 것들을 먹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우주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 받는 순환의 일부분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환경은, 나 자신과 동일한 구조를 지닌 개체인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社會)라는 환경이다. 사람이 일으키는 감정(感情)의 변화는 사회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정보교감의 형태이다. 한의학의 여러 분야 중에 사상의학(四象醫學)은 이 감정의 패턴이 사람 몸의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건강의 첫째 조건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데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것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돈이 인생의 목적(目的)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인생에서는 가끔 목숨보다 소중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도 버리는 일이 허다한데, 자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고 본다. 물론 아무 것도 아닌 일에 건강이나 목숨을 바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몸을 버려서라도 이루어야 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건강이 무슨 문제이겠는가?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 행복할 것이다. 반면 삶에 별다른 의미도 없고 그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몸을 추스른다면 건강하더라도 불행할 것이다. 삶을 행복하게 영위(營爲)하기 위해서 건강은 다른 어떤 조건보다 중요한 조건임에 분명하다. 어떤 일을 이루는데 체력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면 건강을 위한 노력을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할 것이다.

그러나 가끔 인생에는 휴식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딘가 숨을 은신처도 필요하다. 그럴 때 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가져다준다. 앓아 누워있는

시간이 단순히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돌아보고 인생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병이라는 것이 삶에서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순간에도 오히려 질병치료에만 매달려 더 큰 인생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왕삼매론>에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良藥)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라는 이야기가 있다. 질병이라는 것도 삶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삶에 대해 초연(超然)한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대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상(臨床)에서 환자를 진찰하다 보면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다. 질병치료의 주체(主體)는 의사(醫師)나 질병 자체가 아니라 환자 자신임을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망각하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의사는 단지 치료의 보조자로 존재할 따름이다. 세상이 너무 전문화되다 보니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전혀 알 필요가 없고, 전문가인 의료인에게 철저히 의존해야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데 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된다. 나의 몸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고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병이 생기는 궁극적인 원인도 나 자신이고 병을 치료하는 것도 나 자신이다. 무엇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픈 것이다.

우리 몸은 오묘(奧妙)하게 만들어져 있고, 사람의 몸은 이상(異常)이 생기기도 하지만 스스로 치유될 수도 있다는 자신의 완전성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내 몸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꾸어 나가야 한다. 하루의 삶 속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사는 것일까? 밤잠도 안 자고 끼니도 걸러 가면서 그토록 집착해서 하는 일에 비해, 스스로의 몸에 관심을 두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옛 성인(聖人)도

하루에 자신을 세 번이나 살핀다(一日三省)고 했는데, 삶의 주체인 자신을 바로잡는 노력은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건강을 지키고 병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먼저 우리 몸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아프면 병원가지 뭐” 라는 자신의 몸에 대해 자포자기하는 태도야말로 건강의 최대 적이다. 병원에

서 해주는 요식적(要式的)인 건강진단 결과는 결코 건강에 대한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아끼며, 나아가 자기를 둘러싼 사람이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삶이야말로,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길이 아닐까 한다.

회원사 동정

## 한국후지쯔, 전남대학교에 R&D전용 슈퍼컴 공급기로

### -자동차공학부 연구용 슈퍼컴퓨터로 VX-E기종 도입-

한국후지쯔(대표:안경수)는 최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자동차공학부의 슈퍼컴퓨터로VX-E시리즈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슈퍼컴퓨터 도입경쟁에는 IBM과 NEC도 참가했으나, R&D Server용 슈퍼컴퓨터로 사양이 차별화되어 CFD(유체역학)계산능력 등이 뛰어난 VX-E의 강점에 밀려났다.

전남대학교 자동차공학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유체역학, 열전달, 난류해석 등의 연구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급격히 발전해가는 자동차 제조 및 연구분야에서 기본이 되는 각종 모델링/시뮬레이션 계산의 초고속 대용량처리를 가능케함으로써 연구활동의 효율성 향상, 연구범위의 확장, 연구기간의 비약적 단축등을 통해 연구활동의 경쟁력을 도모게 되었다.

이번 슈퍼컴퓨터 VX-E는 우주과학, 기상, 재료물리학, 충돌/유체해석 등의 고속대량의 연산처리가 필요한 분야에 적합한 과학기술 연산용이다. 후지쯔의 슈퍼컴퓨터는 타사의 시스템이 유닉스모델에서 발전한 스킵라방식의 고성능 서버인것과는 달리 초고속 벡터 병렬처리형으로서 기상분야와 학교/연구소의 연구용으로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다.

VX-E시리즈는 소규모 연구소 및 기업의 R&D서버로 적합한 기종으로서 PE(처리장치)에 선풍 0.35 $\mu$ m, 집적도 800만 트랜지스터라는 최첨단의 초고속 고집적 CMOSLSI기술을 채용하여, 초고속 성능을 발휘하면서 설치의 용이성을 높이고 저가격화를 실현했다.

1PE당 성능은 최대 2.4GFLOP로 CMOS기술을 사용한 처리장치에서 세계 초고속을 발휘하고, 4PE(chleo 9.6GFLOPS최고속)까지 확장할 수 있다. 크기는 최소 구성으로 폭69cm×너비84cm의 콤팩트 한 디자인으로 설치면적은 2.2 $\text{m}^2$ 이다. 공냉식이며 소비전력도 2.0KVA로서 사무실에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와 함께 쉽게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본 소프트웨어를 미리 인스톨하여 출하하는 All in One System으로 되어 있어 번잡한 인스톨 작업 없이 전원을 넣으면 곧 사용할 수 있다. 주기억에는 1PE당 최대2GB까지 대용량 탑재할 수 있어PE의 초고속성과 더불어 슈퍼컴퓨팅에 필요한 초고속, 대용량 처리를 할 수 있다.

※문의사항: 한국후지쯔 공공시스템부 최한주 부장(전화 3787-5921)